

「藤村詩集」論

김희중*·임성규**

目次

1. 들어가며
2. 범신론적 자연에의 동경
3. 도손시에 나타난 성서의 구
4. 마치며

1. 들어가며

일본에 이른바 근대적인 서구 사상, 특히 기독교의 영향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 것은 명치기예의 일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근대문학이 확립한 시기에 나타난 사회적 흐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에 나타났던 기독교의 영향뿐만 아니라, 성서의 성구 그 자체의 영향도 또한 많다. 일본어 번역의 성서를 연구해 보면, 이것이 사실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다. 일본어 번역 성서 중 「시편」이나 「아가」 등에 나타난 성서를 읽어보면 더욱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손은 항간에 회자되는 성서나 찬송가로부터 문학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소재로서 그것들을 『도손시집』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 여기에서는 성서와 도손 작품을 비교 문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토하고, 도손의 문학적 발상과 성서와의 관련을 생각해 보고 싶다.

2. 범신론적 자연에의 동경

이장에서는, 도손이 경건한 기독교 신자이었는지 아닌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도손은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고 나서도, 기독교와의 관계를 지속해왔다. 도손의 생애에

* 동남보건대학 관광일어통역과 부교수 일본근대문학

** 천안대학교 어문학부 부교수 일본근대문학

있어서, 그의 생활 태도나 사고방식 및 문학에 기독교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특별히 도손의 시를 중심으로 하여 구명하고 싶다. 명치21년 6월 17일 명치 학원 재학 중의 도손은, 다카나와다이마치(高輪臺町) 교회에서 기무라구마지(木寸熊二)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명치26년 1월, 당시 소속하고 있던 이치반초(一番町) 교회의 우에무라(植寸正久)목사에게 이적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 당시의 일은, 도손의 자전적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櫻の實の熟する時(버찌 열매 익을 무렵)』에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버찌 열매 익을 무렵』의 매력의 하나는 작품 속에 넘치는 기독교적 분위기이다. 그것은 명치 시대의 이국정서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년 반인가 이년 사이, 스테키치는 실로 유유히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혈기 왕성한 사람들 사이에 와 보니, 누구도 그렇게 주의 깊게 그의 행동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새장에서 뛰어 나온 작은 새와 같이 제멋대로 행동할 수 가있었다. (중략) 학창에는, 동경뿐 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온 양가의 자제도 많이 모여 있어서, 서로 학생스러움에 유행을 경쟁했다. 부드러운 흑라사 외투의 색깔 들어 흘릴만한 부드러운 편물의 구두의 발소리 등은 정말로 그의 호기심을 끌었을 것이다. 어느새 그도 양가의 자제의 풍속을 배웠다.

(중략) 그는 젊은 남녀가 교제하는 장소, 집회, 교회 장로의 가정 등에 출입하여, 자신과 마음이 맞는 가련한 상대를 찾았다.(學校へ入った當座、一年半か二年ばかりの間、捨吉は實に浮浮と楽しい月日を送った。血氣壯んな人達の中へ来て見ると、誰も左様注意深く彼の行動を監督するものは無かつた。まるで籠から飛出した小鳥のやうに好き勝手に振舞ふことが出來た。(中略) 學窓には、東京ばかりでなく地方からの良家の子弟も多勢集まつて来て居て、互に學生らしい流行を競ひ合つた。柔い黒羅紗の外套の色澤、聞き惚れるやうな軟やかな編上げの靴の音などは奈何に彼の好奇心をそゝつたらう。何時の間にか彼も良家の子弟の風俗を學んだ。(中略) 彼は若い男や女の交際する場所、集會、教會の長老の家庭などに入出し、自分の心を仕合にするやうな可憐な相手を探し求めた。)

(『櫻の實の熟する時』)

근대에 있어 기독교를 제재로 해서 소설을 썼던 작가에게는, 젊은 시절에 기독교를 신봉하고, 또는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이 많지만, 도중에 기독교를 버렸던 작가도 많다. 도손 뿐만 아니라, 도쿄쿠나 독보도 신앙과 낭만주의를 혼동하고 있고, 이윽고 기독교로부터 이탈해버린다. 植寸正久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까지의 문학에는 기독교의 용어나 정신이, 폭넓게 침투해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 문학이라고 할만한 걸작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¹⁾라고 말하고 있다.

명치 이후의 사회나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는, 가톨릭보다도 프로테스탄트이고, 도손의 경우도 그것이었다. 프로테스탄트의 경우는, 신앙생활의 전통이 없는 일본에서는 받아

1) 三好行雄外『明治の文學』(소화47년6월, 有斐閣) p.155

들어지기 쉽지만, 동시에 교회와 신자의 결속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교 또는 포기하기 쉬운 위험성도 많다. 명치의 작가들이 한때 기독교도이면서, 대부분 전부 이교 혹은 포기하는 것은, 그들이 신념에 근거한 신자가 아니라, 무드로 동경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강한 배교 의식없이, 교회로부터 떠난 것이다(明治以後の社會や文化に影響したキリスト教は、カトリックよりもプロテスタントであり、藤村の場合もそれであった。プロテスタントの場合は、信仰生活の伝統のない日本ではより受け入れられやすいが、同時に教會と信者の結び付きの稀薄さから、離教もしくは棄教しやすい危険も多い。明治の作家たちが一時キリスト教徒となりながら、ほとんど全部離教もしくは棄教しているのは、彼等が信念にもとづいた信教者でなくして、ムードにあこがれて近づいたためである。それ故彼等は強い背教意識なしに、教會から離れて行ったのである。)2)

도손의 기독교에의 입신 그 자체는 심각한 종교적 고민을 수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는 일조차 안이하게 행해진 것이다. 『버찌 열매 읽을 무렵』에 있어서, 一番町教會로 옮겨서 새롭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기시모토가, 이윽고 교회를 버린 것은 연애 때문이고, 신앙상의 이유는 아니었다. 그는 「덧없는 연애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나간」 것이다.

(전략) 스테키치의 말에 의하면, 그 자신의 젊은 신앙은 시와 종교의 유치한 마음이 섞인 것 같은 것으로, 어른의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서는 먼 것이었다. 그의 기독교는 너무나도 시적인 인격의 환영이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웬지 모르게 부족함을 느끼게 했다. (前略) 捨吉に言はせると、彼自身の若い信仰は詩と宗教の幼稚な心持の混じ合つたやうなもので、大人の徹した信仰の境地からは遠いものだつた。彼の基督はあまりに詩的な人格の幻影で、そこが彼自身にも物足りなかつた。 (『櫻の實の熟する時』)

여기에서는 도손을 매료한 「神」의 성격과 교회의 분위기가 나온다. 도손의 신앙은 시와 종교의 유치한 마음이 섞였던 것이다.

吉田精一은 도손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는 시에 취한 듯이 신앙에 취했다. 그것은 청년의 로맨티시즘에 입각한 꿈과 같은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3)라고 지적하고 있다. 젊은 岸本가 크리스티교에 입신한 이유는, 성찬식과 같은 교회행사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남녀의 교제에 있었다. 그것이 교회내의 분위기와 함께 일종의 이국정취를 불러일으켜, 젊은 그를 매료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금」이라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그의 꿈은 깨어지고, 실망만이 남았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을 향한, 크리스티교 신학적인 주장보다 크리스티교 신자의 사

2) 吉田精一『島崎藤村』(『吉田精一著作集』6 소회56년7월 櫻楓社 p.69)

3) 同註3 p70

량과 친절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회의보다도, 실제로 기독교회의 경직성과 세속적인 추함 때문이다.

신은 왜 이렇게 이상한 세계를 창조했을까? 왜 어떤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어떤 것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을까? 왜 참새의 옆에 매를 놓아두고, 양 옆에 늑대를 놓아두고, 개구리 옆에 뱀을 놓아두고, 닭 옆에 쥐를 놓아두었을까? 왜 평화스러운 신의 교회에 까지 끊임없이 암투를 부여하고, 부유한 장로와 가난한 집사를 다투게 했을까?

스테키치는 이렇게 생각에 빠졌다. 간음하지 마라, 처녀를 범하지 마라, 형수를 취하지 마라, 그 외 일절의 부덕은 여호와 신이 경계하는 것이다. 바이런의 일생은 도저히 신이 즐거워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영국의 시인이 이태리에 놀러 갔을 때, 베니스의 거리에서 적령기의 딸을 가진 어머니는 저 미모이고 방종한 사람을 보지 않게 하려고 창을 닫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물을 비판하는 듯한 바이런의 시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일까? 그 매력은 무엇일까? 비록 그의 품행은 신은 왜 이렇게 이상한 세계를 만든 것일까? (神は何故に斯く不思議な世界を造つたらう。何故にあるものを美しくし、あるものを殊更醜くしたらう。何故に雀の傍に鷹を置き、羊の側に狼を置き、蛙の側に蛇を置き、鶏の側に鼯鼠を置いたらう。何故に平和な神の教會にまで果しなき暗闘を賦与し、富める長老と貧しい執事とを争はずだらう。捨吉は斯く思い沈んだ。姦淫する勿れ、處女を侵す勿れ、嫂を盗む勿れ、其他一切の不徳はエホバの神の誠むるところである。バイロンの一生は到底神の嘉納するものとも思はれない。英吉利の詩人が以太利へ遊んだ時、エニス町で年頃な娘をもつた家の母親はあの美貌で放縱な人を見せまいとして窓を閉めたといふではないか。それにしても、万物を悲觀するやうなバイロンの詩が奈何して斯う自分の心を魅するだらう。あの魅力は何だらう。仮令彼の操行は神は何故に斯く不思議な世界を造つたらう。) (『櫻の實の熟する時』)

여기에 묘사한 현실과 인생에 대한 회의는 키시모토 자신의 모순의 표백이었다. 西鶴의 「好色一代女」를 찢어버린 키시모토는, 신성한 구약성서 속에서 가능한 한 외설적인 부분을 주어서 읽었던 남자이기도 하다. 높은 정신세계의 동경도, 관능의 세계에의 욕구도 공히 거짓이 없는 키시모토의 현실이었다. 이 모순이 키시모토의 우울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伊東一夫는 도손의 교회이탈 문제를, 「교회와 신교에의 비판과 반항이 이었지, 크리스티교 그 자체의 반역 혹은 부정은 아니었다」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손이, 그 정신 안에서, 신을 믿는 기독교 신자의 입장을 잃은 사정에 대하여, 笹淵友一는 이렇게 논하고 있다.

기독교적 절대 신에서 범신론적 자연으로, 도손의 최고 가치개념이 바뀌었을 때 도손의

4) 伊東一夫『島崎藤村研究—近代文學研究方法の諸問題—』(소화44년3월, 明治書院)

크리스찬으로서 입장은 아주 사라졌다고 생각 된다. 그 시기는 약 명치27·8년의 무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사상적 입장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 휴머니즘에 완전히 이행한 것을 의미한다. (중략) 「若菜集」이후 도손의 사상적 입장이 거기에 있다. 게다가 도손의 휴머니즘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매개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과의 관련이 단절해버린 것은 아니다. (キリスト教的絶對神から汎神論的自然へ、藤村の最高價值概念がおきかへられたとき、藤村のキリスト者としての立場は全く消滅したと思はれる。その時期はほぼ明治二七、八年の交であつた。そしてそれは、彼の思想的立場が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からヒューマニズムへ完全に移行したことを意味する。(中略) 「若菜集」以後の藤村の思想的立場がそこにあつた。しかも藤村のヒューマニズムは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に媒介されたものであつた。従つてキリスト教的世界觀との關聯が斷絶してしまつたわけではない。)5)

그리고 笹淵友一은 도손시가 성서와 찬송가를 모태로 하여 성립한 사정을 고찰하고, 「크리스트교는 도손 문학의 하나의 원천이었다」, 「비 크리스트교적 내지 반 크리스트교적 시정이 크리스트교를 매개로 하여 성립했을 뿐 만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시정 자체가 심화, 내면화되었다」 『文學界』とその時代(소화35년1월, 明治書院)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점에서 山本建吉은

일견 신앙을 버린 것 같으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문학이 종교와 계율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한번도 없다. 그의 문학은, 종교와 계율과 죄의 의식에 미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의 우수와 은둔적 기분을 키운 것은, 明治學院의 칼뱅주의이었는데도 모른다 (一見信仰を捨てたようでありながら、彼においては文學が宗教や戒律に對して、決定的な勝利をおさめたことは、一度もない。彼の文學は、宗教と戒律と罪の意識にいつも後ろ髪を引かれている。彼の憂愁と隱遁の氣分を育てたものは、明治學院のカルビン主義であつたかもしれない。) 『讀賣新聞』(소화38년12월1일)

라고 지적한다. 요컨대, 초기의 도손의 문학은 크리스트교를 매개로하여 성립하였지만 더욱이고 동양적인 신비 혹은 범신론적 자연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상이 그에게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3. 도손시에 나타난 성서의 구

도손시가 다양한 「의식된 배경」(伊藤信吉『現代詩人』(소화15년7월)을 갖고 성립된 것은

5) 『文學界』とその時代』下 p.356

이미 많은 선학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주로 和歌나 俳諧, 漢詩, 英詩, 新體詩와의 깊은 관련을 도손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장에서는 『藤村詩集』에서 구·신약성서와 찬송가와와의 관련이 있는 관련시를, 그 작품 순서에 맞추어서 대조하여 비교 검토하여 본다.

「若菜集」

도손의 제1시집. 명치30년8월25일 춘양당에서 간행. 서시 함께 52편을 수록하고 있다.

おきぬ(오키누) (「文學界」48호)

おつた(오투타) (「文學界」48호)

明星 (「文學界」49호)

潮音 (「文學界」50호)

草枕 (「文學界」50호)

新曉 (「文學界」49호)

若水 (「文學界」49호)

2개의 소리 (「文學界」46호)

葡萄の樹의 음지 (連作「うたたね」제3)

天馬 (「文學界」49호)

秋のうた(가을 노래) (「文學界」46호)

初戀 (「文學界」46호)

狐のわざ (「文學界」46호)

逃げ水 (「文學界」46호)

深林의 逍遙 초출은 「帝國文學」3권 3호 (명 30·3)

「一葉舟」

도손의 제2시집. 명치31년6월15일 춘양당에서 간행. 시5편·산문구편을 수록하고 있다.

鶯歌 초출은 「文學界」53호 (명30·5)

白磁花瓶賦 초출은 「文字界」54호 (명30·6)

葡萄樹의 음지 초출은 「文學界」32호 (명 28·8)

春詞 초출은 「文學界」28호 (명28·4) 원제 「おもひづるまま(생각나는 대로)」

友に寄するの書(친우에게 보내는 서) 초출은 「文學界」29호 (명28·5) 원제 「聊か思ひを述

べて今日の批評家に望む(약간의 생각을 말하여 오늘의 비평가에게 바란다)」

西花余香 초출은 「うらわか草」 「文學界」별책 (명 29·5)

「夏草」

작자의 제삼시집. 명치31년, 12月6일 춘양당에서 간행.

서명은, 카바에서는「夏草」, 표지에서는「なつくさ(여름 풀)」. 시 14편을 수록하고 있다
「夏草」는 여름을 음미하는 의미이지만, 「女學雜誌」甲의 卷324・325・327・328(명25・7~9) 「文學界」47호 (명29・11)에 게재된 번역「夏草」를 직접 전거로 하고 있다.

晩春의 別離 『夏草』에 초출

曉의 誕生

月光五首

新潮(にひしほ)

二つの 泉

天河二首

婚姻의 祝歌

農夫

「落梅集」

도손의 제4시집. 명치34년8월25일 春陽堂에서 간행. 시24편, 산문4편을 수록하고 있다.

勞働雜詠 (「新小説」4년13권, 명치32년11월)

壯年の 歌 (「新小説」5년4권, 명치33년3월)

罪 (「新小説」5년7권, 명치33년5월)

가슴에서 가슴으로 (「新小説」5년7권, 명치33년5월)

舟路 (「新小説」5년8권, 명치33년6월)

千曲川旅情의 노래 (「文界」1호)

寂寥 (「伽羅文庫」1권2호)

響りんりん音りんりん (「新小説」4년10권, 명치32년8월)

火曜日 新茶 (「讀賣新聞」명치31년 11월3일)

다음은, 도손의 초기시를 읽고 기독교와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내용을 분석해 보자
먼저 「おつた」(「文學界」48호)에 있어서 성서와의 관련에 대하여 조사해보자.

젊은 성인에게 구원받고/앞머리도 사람을 사모하는 처녀가 됐네/젊은 성인 말하기를/때를 기다리는
당신이라면/그 감의 열매를 따지말라

若き聖に救はれて/人なつかしき前髪の/處女とこそはなりにけれ

若き聖ののたまはく/時をし待たむ君ならば かの柿の實をとるなけれ

이 시구에서는, 등장인물이 기독교 신자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엄한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며, 금욕을 설파하는 젊은 성자들’ 나타내고, 「聖」의 훈계의 내용에서도, 작자의 열력, 환경에서도, 기독교 전도자의 사상을 떠올릴 수 있다

「草枕」(「文學界」50호)에는 성서와 관련이 깊은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사람의 삶은 슬프구나/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며/길도 없는 숲으로 들어가며/갈 길을 찾는
구나/
かなしいかなや人の身の/かきなぐさめを尋ね侘ひ/道なき森に分け入りて/などなき道をもとむらん

이 구절은 「신약성서」마태복음 8장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에 연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숙인 미야기노여/흐트러지고 뜨거운 나에게는/햇살도 희미하고 풀이 마르고/황폐한 야산만 반감구나
홀로 외로운 나의 귀에는/불어오는 북풍이 가야금같이 들리고/슬픔이 가득 찬 나의 눈에는/
색깔이 없는 돌도 꽃으로 보이네
소리 내어 기뻐하며 들관을 돌아다니는 인자여/끌어가는 손도 얼어붙고/ 어차피 못 박히는
결말이네
心の宿の宮城野よ/亂れて熱き吾身には/日影も薄く草枯れて/荒れたる野こそうれしけれ
ひとりさみしき吾耳は/吹く北風を琴と聴き/悲しみ深き吾目には/色彩なき石も花と見きうれし
や物の音を弾きて/野末をかよふ人の子よ/聲調ひく手も凍りはて/なに門つけの身の果ぞ

이 시구는 「신약성서」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를 인용하고 있다.

다음에 「逃げ水」(「文學界」46호)를 읽어보자.

「逃げ水」는 「逃げ水」를 쫓아가듯이, 혹은 「逃げ水」그 자체와 같이, 사랑의 암로의 도피 행각을 계속하고 싶다는 어두운 정열에 둘러싸인 정서를 노래한 것으로, 「신선찬미가」제 4장(植寸正久 역)의 패러디로서 기독교신자로서 자신이 과거와의 결별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황혼에 조용히/ 꿈꾸며/즐거운 그곳에 나는 가네/사모하는 당신과 손을 잡고/어두운 저 세상
까지도 달려가네/우울함과 고민을 나의 신에게/맡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네

ゆふぐれしづかに/ゆめみんとて/たのしきそのへと/われはゆかじ/なつかしき君と/てをたづさべ
くらき冥府までも/かけりゆかん/れひもなやみも/わがみかみに/まかすることをぞ/よろこびとせん

다음은 「曉の誕生」을 봐보자.

특히 맑은 홍색 빛을/ 내는 명성이여/곧 처녀가 될 때까지/너의 성장 과정을 인내하라 아아
씩지 않고 이혼 살의/예술의 신도 정이 있다면/이 고운 영아에게/향기로운 이슬을 부어주세
요

ことにさやけき紅の/光を放つ明星や/やがて處女となるまでの/汝がおひさきのしるべせよ

탄생과 별의 밝기를 연결하는 것은 「신약성서」마태복음 2장의 크리스트의 탄생을 묘사
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야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
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성구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ああ朽ちずてふ九つの/芸術の神も心あらば/このうはしきみどりごに/香の露をそそげかし

이 시는 신생아 크리스트가 아름다운 꿈을 찾아 성장해 갈 때, 늘 상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성서에는 크리스스트탄생 때 동방박사가 축복의 향유를 부었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香の露をそそげかし」의 구는, 성서에서 축복을 위해서 향유를 붓는 장면을 가리키
고 있다. 크리스트 탄생 때도,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 약을 예물로’ 드렸다. 첫 2
절에서는 처녀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출생과 별과의 관계는, 크리스트탄생의
별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손의 의식 중에는 「새벽녘의 명성과 탄생이 성서에 의해 자연」⁶⁾적으로 연결되고 있
는 것이다.

幸을 더위 먹고 피곤해지고/목마르고 슬퍼하는 자에게/아아 나무그늘의 풀이여 있어줘라
깊고 맑은 샘물을 다 마시며/자연 속에 솟아오르는/맑은 생명을 길어와 주세요요

幸はあつきにつかれはて/渴きかなしむ人にあれ/あ樹の蔭の草

深く/すめる泉を飲みほして/自然のうちに湧きいづる/清き命を汲ましめよ

이 「二つの泉」는 자연계의 냉천과 온천을 이미지한 것으로 전자는 인간의 청명한 것
에의 동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 이라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자는

6) 關良一『藤村詩集』(『日本近代文學大系』소화46년2월 角川書院 p.50

인간의 어두운 정열, 현실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다. 「신약성서」마태복음 5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시는 또한 도손의 내부를 울리는 것이었다. 이 성서의 성구를 도손은 개인적인 「渴きかなしむ人にあれ/ああ樹の蔭の草深く/すめる泉を飲みほして/自然のうちに湧きいづる/清き命を汲ましめよ」라는 시로서 승화하게 한 것이다.

幸은 희망이 희박하고/고민하는 사람이네/아아 저녁바람이 불어올 때/뜨거운 샘물로 목욕하며/자연 속에 솟아나는 이상한 힘을 알게 해다오

幸は望みの薄くして/思ひなやめる人にあれ/ああ夕風のきたるとき/熱き泉に浴みして/自然のうちにほとばしる/奇しき力を知らしめよ

바위와 바위의 계곡의 그늘에/모래와 모래의 산마루에/푸른 풀이 생겨/꽃피는 화단이 될 때까지는/밤낮없이 넘치며 끝없는 샘인 줄 아네 여인이여

岩と岩との谷のかけ/砂と砂との山のはを/緑の草の生ひいでて/花さく園となすまでは/あふれいでつつ晝も夜も/たえぬ泉とするや旅人

이 시구는 「『구약성서』창세기 3장 에덴동산에 유래하는 밀튼의 『실낙원』제 4장 23행-241행」⁷⁾을 인용하고 있다. 두 샘은, 계곡사이의 청초한 수풀사이를 통하여 흘러가는 청명한 샘물로서, 종교적 세계, 구체적인 크리스티교의 사랑의 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 마치며

「(신 안에서 우리들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神のうちにわたしたちは生き、動き、存在している」(사17: 28)라는 크리스티교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신 안에서)神のうちに」인간도 자연과 같이 신의 피조물로 성립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성서에서는 愛는 아가페라고 일컬어져서, 그리스에 기원을 둔 에로스의 개념과는 구별되어서 사용된다. 또한 성서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갖는 것이고, 인간은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했다)光よりもやみを愛した」(요한3: 14)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生」에 대하여, 성서가 「(인간은 한번 죽는 것과, 사후에는 재판을 받는 것이 정해져있다)人間には一度死ぬことと、死後にさばきを受けることが定まっている」(히브리서9: 27)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할만한 일이다. 「죽음」에 대하여서는, 죽음은 갈브리 산상에서의 십자가의 「死」이고, 이것은 인간을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기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의 「生」과, 새로운 「生」의 회복의 의의가 설명되고

7) 同誌6

있다. 이것이 크리스트교의 죽음과 부활이고,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기도하다. 여기에 든 신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도손이 이해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앞에서 논술 한대로, 명치의 일본인이 크리스트교를 받아드리는 방법에 있어서의 특수성과, 도손이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적 경향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에 인간이 배반하면,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다. 도손은 신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죄의식이 결여되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笹淵友一가 말하는 「이것은 거의 사상이전의 경향이고, 도손의 개성 일 뿐 아니라, 일본인의 전통」이기도 하였다. 성서를 문학적 촉매로 한 도손 시는 도손이라는 개성의 독자의 로맨티시즘 위에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參考文獻】

- ・秋田雨雀編 『島崎藤村研究』 樂浪書院 昭和九年十一月刊
- ・武藤直治 『島崎藤村』 新陽社 昭和十一年四月刊
- ・島崎靜子 『藤村の思い出』 中央公論社 昭和二五年五月刊
- ・龜井勝一郎 『島崎藤村論』 新潮社 昭和二八年十二月刊
- ・田中宇一郎 『回想の島崎藤村』 四季社 昭和三十年九月刊
- ・久山康編 『近代日本とキリスト教』 一明治篇一 創文社 昭和三十一年四月刊
- ・稻垣達郎 『日本の近代文藝と早稻田大學』 早稻田大學 昭和三二年十月刊
- ・平野謙 『島崎藤村』 五月書房 昭和三二年十一月刊
- ・吉田精一 『自然主義研究』 下卷 東京堂 昭和三十三年一月刊
- ・長谷川泉 『近代名作鑑賞』 至文堂 昭和三十三年六月刊
- ・瀬沼茂樹 『評傳島崎藤村』 實業之日本社 昭和三四年七月刊
- ・笹淵友一 「文學界」とその時代』 明治書院 昭和三五年一月刊
- ・村松定孝 『島崎藤村』 角川書房 昭和三五年九月刊
- ・吉田精一 『吉田精一著作集』 六 櫻楓社 昭和五六年七月刊
- ・『島崎藤村』Ⅱ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有精堂 昭和五八年六月刊
-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特集透谷と藤村>」 昭和三九年六月刊
- ・「解釋と鑑賞」別冊 『現代のエスプリ島崎藤村』 昭和四一年五月刊
- ・「解釋と鑑賞<自然主義と反自然主義>」 昭和四三年九月刊
-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島崎藤村と日本の近代>」 昭和四六年四月刊
- ・「解釋<特集・島崎藤村研究>」 昭和四九年七月刊
- ・「信州白樺<特集藤村>」 昭和五十年四月刊
- ・「解釋と鑑賞<島崎藤村の再檢討>」 平成二年四月刊

- ・「島崎藤村研究」『風雪』第一集～第十集
- ・「島崎藤村研究」第五號 昭和五四年十二月刊
- ・「島崎藤村研究」第十四・十五合併號 昭和六二年六月刊

K C I

要 旨

絶対唯一の神を信じる習慣のない日本人のキリスト教に対するうけとり方は特殊で、それは何よりも新しい文化として、道徳倫理として入ってきた。そのために一面では宗教と倫理とを同一視し、倫理の源泉である「神」に深く近づくことなく、倫理そのもののみを神として見る傾向を生じた。信仰をはなれた倫理のみがのこったわけである。キリスト教徒から社会主義者を派生したのはそのためである。教義に附属した社会的正義感が、信仰の本體としての「神」を置き去りにして、社会主義を、あるいは理想社会を禮拜の対象としたというわけである。藤村の自然と神とを同一視する汎神論的傾向によるものである。ここにあげた神の言葉と十字架の死と福音に人間がそむけば、人間が罪を犯したことになるというのが、キリスト教の世界観である。藤村は神と人間を同等に視る傾向があり、従って罪意識を缺いていたのである。だからこそ笹淵友一のいう「これはほとんど思想以前の傾向であり、藤村の個性であるばかりでなく、日本人の傳統でもあった」のである。聖書を文學的觸媒にした藤村詩は、藤村という個性の独自のロマンティズム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といえよう。

キーワード：藤村、自然、聖書、キリスト教、神、ロマンティズム

투 고 : 2005. 8. 31
1차 심사 : 2005. 9. 10
2차 심사 : 2005. 10. 1

住 所 : (440-841)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2-1
電 話 : (017) 350-2794
e-mail : josepk04@hanmail.net

住 所 : (330-704) 천안시 안서동 115 천안대학교 어문학부 일본어전공
電 話 : (041) 620-9417
e-mail : imsung@cheonan.ac.kr